

2023 5·18문학상 아동문학 부문 신인상 심사평

5·18문학상 아동문학 부문에서는 동화 52편, 동시 134편이 접수되었다. 5·18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작품에 대한 기대를 안고 응모작품들을 꼼꼼히 읽었다.

동시는 지난해보다 응모자는 늘었으나, 작품성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중 <할아버지의 흉터>는 표현력과 주제를 드러내는 솜씨가 돋보였지만 함께 응모한 다른 작품들과 편차가 커서 망설이게 하였다. 그 외 <흉터>, <아마도> 외 4편, <미안마 사람들> 외 4편의 작품도 깊이 살펴보았으나 완성도가 흠으로 남았다.

동화에서는 행간에 숨겨 놓은 주제를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을 중계하는 듯한 구성과, 기법을 차용한 작품이 많았다. 아마도 5·18정신이라는 주제에 얽매이다 보니 생긴 결과이리라. 문학이 현실을 담아내는 그릇이긴 하지만, 너무 현장 모습을 재현하는 것에 그친다면 문학이 아닌 르포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이제 낡은 방법이다.

응모 작품마다 장점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중 <빛 한 조각>, <덕팔이 동생 덕구>, <24시 목욕탕의 비밀> 세 작품을 최종심에 올렸다.

<빛 한 조각>은 소재가 신선했다. 가정집 벽장에서 5·18 당시 목판화가 대거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꿈속에 빠져들면서 아저씨를 만나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너무 사실적인 표현과 결말의 완성도가 떨어져 아쉬움이 남았다.

<덕팔이 동생 덕구>는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 손녀와 극구 반대하는 할머니의 대치로 이야기의 문을 열었다. 덕팔이 할머니는 5·18 때 계엄군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반려견 덕구를 지켜주지 못한 아픔과 슬픔이 한이 되어 마음이 닫혀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손녀딸과의 갈등은 5·18의 상처가 후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자칫 둘로 갈라지는 양상이 보여, 단편보다는 장편으로 풀어야 더 적합한 이야기였다.

최종 당선작으로 뽑은 <24시 목욕탕의 비밀>은 24시 목욕탕 영업을 고집하는 할머니와 아빠의 갈등에서 시작된다. 이를 바라보는 화자인 손녀는 할머니를 도와 목욕탕을 보면서 왜 할머니가 극구 24시간 영업을 고집하는지 알게 된다. 콜라를 마시다가 5·18 현장 속으로 가게 된 화자는 5·18 당시 도청에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소녀시절 할머니를 만나 그 비밀을 알게 된다. 몇 가지 결점도 보이지만 탄탄한 구성과 문학적 장치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당선작으로 뽑는데 이견이 없었다. 앞으로도 좋은 동화를 쓸 수 있겠다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2023년 4월 25일

2023 5·18문학상 신인상 아동문학 심사위원

김미승 / 이옥근